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정 도 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dcchung@krei.re.kr

1. 우리 농업·농촌의 여건
2. 농업·농촌의 구조와 맞춤형 정책
3. 6차 산업화의 정의와 의미
4. 6차산업화 주요 추진실적과 성과
5.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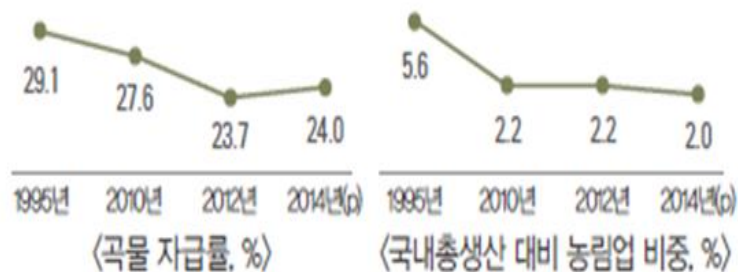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1. 우리 농업·농촌의 여건

(1) 농촌 활력 저하

- 고령화·과소화 등 농가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인력 부족 및 농촌 전반의 활력저하
 - 농가인구 : ('95) 4,851천명 → ('10) 3,063 → ('14) 2,752
 - 농촌 65세 이상 농가비중 39.1%(전국 평균 12.7%)로 고령화 심화
- FTA 확산 등 본격적인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업의 자생적 성장기반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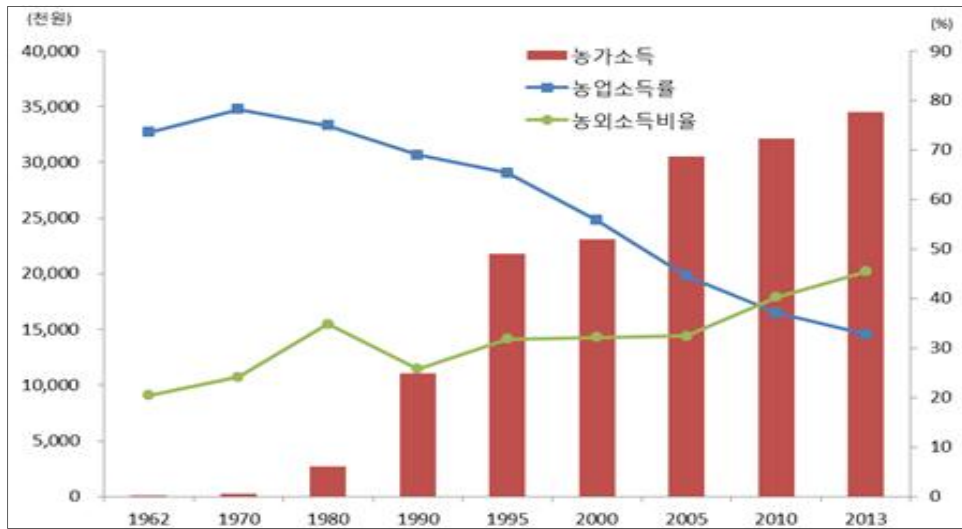
그림 1. 농림업 비중 변화



- 농가의 소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농업 소득률은 60년대 75%에서 30%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2003년 이전에는 농업소득이 농업총수입의 50%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12년에는 33.1%로 감소되어 농촌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4 농업·농촌의 서비스 산업화 - 6차 산업

그림 2. 농가 소득 구조 변화



주 1. 농업소득률 = 농업소득(농업총수입 - 경영비) / 농업총수입 *100

주 2. 농외소득비율 = 농외소득 / 농가소득 *100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 농업 생산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국가산업 전반에서 농림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2005~2014년) 농림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20.1%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시기 국내 총 부가가치 증가율 61.4%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동 기간 농림업 부가가치의 비중은 2005년 2.9%에서 2014년 2.1%로 감소하였음.

표 1. 농림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단위: 십억 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농림업 생산액	36,273	36,389	35,837	39,663	42,995	43,523	43,214	46,357	46,648	47,292
농림업 부가가치	23,929	23,843	23,257	22,587	23,540	24,872	26,721	27,359	27,376	28,740
총부가가치 비중	2.9%	2.7%	2.5%	2.3%	2.3%	2.2%	2.2%	2.2%	2.1%	2.1%
부가가치 증감률	—	-0.4	-2.5	-2.9	4.2%	5.7%	7.4%	2.4%	0.1%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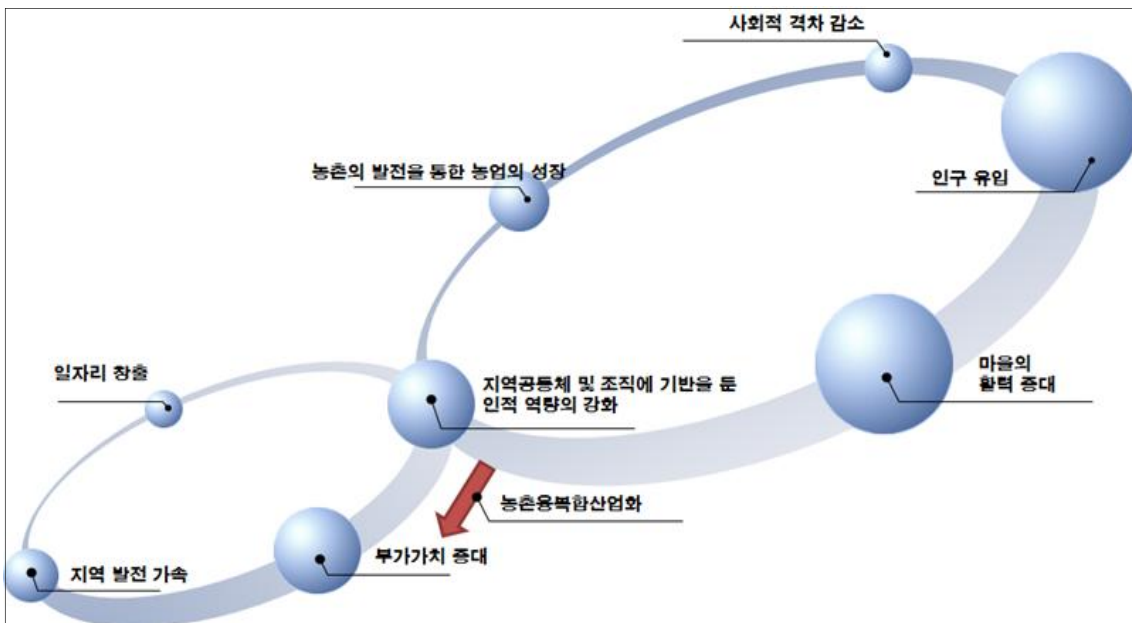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산업연관표 재구성

- 그 결과, 농가 소득 증대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
-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1995년 96.0%에서 2014년 62.2%로 감소

(2)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 경제의 선순환 도모

- 농업·농촌의 어려운 상황과 농업 축소 - 농촌 경제 활력 저하 - 과소화·공동화
 - 지역의 성장 역량 저하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농업·농촌의 고유한 자원과 발전경로에 입각한 농촌 활성화 전략의 목적에서 6차산업화 추진
- 이에 6차산업화는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가공·유통·관광 등 2·3차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농촌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 순환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농촌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함.
- IT, BT 등 첨단 과학 영농의 부상, 식품 및 농산품 수출시장의 확대, 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입각한 체험·관광에 대한 국민 인식의 증가, 가치소비의 확대, 귀농·귀촌, 청년 창농의 유입과 같은 우호적인 환경이 6차산업화의 기회요인으로 작용

그림 3.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의 활력제고



자료: 심재현, 정도채, 2016, 농촌발전, 융복합산업으로 도약하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농업·농촌의 구조와 맞춤형 정책

- 농업 경영체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추진
 - 농업 경영체 DB에 등록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연령, 경력 등 농가특성과 재배면적, 조수입 등 경영특성을 기준으로 정책 대상 등을 분류

표 2. 농업경영체 DB 상의 경영체 분류 및 6차산업 경영체 현황

경영체 유형	세부 유형	대상(천호)	비율(%)	비고
전문농	전문농	129	8	재배면적 상위 30%, 조수입5천만원 이상
일반농	예비전문농	45	3	조수입3천만원 이상
	6차농	98	6	
	일반농	486	31	
고령농	고령농	397	25	
	은퇴농	293	19	
창업농	창업농	121	7	
취미농	취미농	19	1	

- 농가 특성에 따른 구분없는 평균적 지원을 지양하고, 농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지원으로 정책 기조의 전환
- 농업의 6차산업화는 전체 37% 수준의 일반농에 대한 안정적인 농외소득 제고 정책으로 추진

그림 4.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의 추진



-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6차산업화’를 통해 농외소득 정책을 체계화
- 최근에는 개별 경영체의 6차산업화 지원에서 생산-가공-유통-관광 분야가 연계된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가소득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표 3. 개별 경영체 6차산업화 지원 및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구분

구 분	개별 주체의 6차산업화	지역단위 6차산업화 시스템
주요주체	개별 경영체	(개별 경영체) + 지원기관, 지자체
핵심 생산활동	농업·농촌 자원의 융복합화 (동종품목)	(융복합활동) + 집합적 생산활동(이종제품 결합)
지원 대상	개별 경영체의 생산활동	(개별경영체) + 지역농산업 네트워크
생산주체집적	무관	집적 이익 추구
공간범위	무관	상호작용 가능한 공간적 영역
목표	품목 중심의 가치사슬 구축과 부가가치 창출	6차산업을 매개로 한 지역 산업생태계 구축

3. 6차 산업화의 정의와 의미

○ 6차산업화의 정의

‘농업(1차산업)과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식품·특산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3차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 근거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14.6.3, 시행15.6.3)

－ 농업인 등 농촌지역주민이 주도

○ 농촌 지역의 부존자원의 활용

－ 부가가치의 농촌 내부화를 꾀함.

○ 기존 농외소득 정책과의 차별성

－ 농가 계층, 특히 규모화·전문화된 농업 경영체 뿐만아니라, 농업경영체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의 소득 기반 확충을 꾀함.

· 농가 경영여건이 영세한 농업 현실에서, 중소·고령농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전략은 농업 생산 의존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농가단위의 겸업 및 다각화 확대를 통해 새로운 소득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

· 중소농, 고령농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농촌 지역사회를 떠받치는 농가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8 농업·농촌의 서비스 산업화 - 6차 산업

- 최근 농업·농촌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역량을 형성할 수 있는 미래 인력 유입을 지향
 - 6차산업화는 귀농·귀촌, 청년 창농과 연계하여 농촌의 새로운 소득기회 및 일자리 창출로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을 적극 유도하는 데서 기존 농외소득 정책과 차별화됨.
 - 농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과정에서 농업 외 새로운 산업(제조업-농공단지)을 통해 지역의 경제기반을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이 이전에도 시도되었으나, 농촌의 상대적인 입지 조건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제한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그침.
 - 6차산업화는 농업에 대한 경험 및 기반이 부족하고, 새로운 경제적 시도를 희망하는 다양한 계층의 농촌 유입을 지원하는 등의 새로운 도·농 간 인구 변동을 자극할 수 있는 촉매로 작용
- 농업·농촌의 부존 자원에 기반하여 지역 농업의 성장을 도모
 - 6차산업화는 농업과 연계한 지역 순환경제 구축을 통해 농촌경제의 자족적 발전을 도모
 - 지역 농산물 연계 가공 및 체험관광, 로컬푸드 활성화로 농업 부문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순환을 꾀함.
 - 마을, 공동체, 읍·면 등 다양한 농촌 공간 단위별로 적합한 자생적 농촌산업 집적지가 발현되고, 이를 통해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견인하는 파급효과 창출을 꾀함.
- 단순히 경영체의 소득 확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농촌 다원적 가치의 확산을 지향
 - 농업·농촌의 생산 활동이 타 산업과 적극적으로 연계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산업구조에서 농업·농촌가치사슬의 영역 확대로 나타나 농업·농촌의 경쟁력과 지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
 - 6차산업화를 통해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가치에 대해 전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농업 부문을 넘어 타 부처정책과 활발한 연계를 추진
 - 다양한 정책목표와 수단을 가진 농업·농촌관련 정책들을 6차산업화 정책 아래 연계하여·효율적으로 추진
 - 지원정책의 범위가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있는 만큼 산업 일반 영역에서 농업 부문의 가치사슬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림부 주도로 관련 정책 담당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꾀함.

- 최근 농촌 산업·경제 뿐만 아니라 6차산업화를 통해 농촌 개발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꾀함으로써, 농촌 정책 전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추진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음.
ex) 구례 자연드림파크
- 6차산업화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보건·주거·문화 등 지역 주민 대상의 공공 서비스 및 다양한 거점 기능의 동반 집적이 나타남

4. 6차산업화 주요 추진실적과 성과

(1) 6차산업화 정책 추진 실적

- 6차산업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6차산업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4.6)되어 체계적인 6차산업화 정책 수립·추진의 근거가 마련됨.
 - 6차산업 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 법률에서는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
 - 법률을 통해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 경영체 대상의 6차산업 사업자 인증 제도, 6차산업화 지구 지정, 6차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 세부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규정
 - －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15~’19)
 -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 법률에서는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2015년도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
 - － 지역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운영
 -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현장감 있는 6차산업 정책의 추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6차산업화 정책의 지역 추진 기반 구축
- 6차산업화를 위한 농업 경영체 지원 정책의 추진

10 농업·농촌의 서비스 산업화 - 6차 산업

-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단 및 6차산업화 지구 지정
 - 지역 농업인,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 체험·관광마을 등 복수의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컨소시엄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며, 공동홍보·마케팅, 역량강화, 품질관리,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 등의 경영활동을 지원
 - 생산자단체, 법인 등이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격이 있는 컨소시엄 또는 향후 법인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단을 주요 대상으로 함.
 - 농촌 자원이 집적화되고, 6차산업화 성장의 기반이 마련된 지역에 대하여 6차산업화 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으로서 6차산업화의 확산을 지원
 - 공동인프라 조성, 규제완화, 전후방 연계산업의 동반 육성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2016년까지 총 16개의 6차산업화 지구 지정)
- 6차산업 우수경영체 인증제도
 - 6차산업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인증사업자로 지정하여 우수 경영체로 육성 및 6차산업 확산의 주체로 활용하고자 함.
 - 인증사업자는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유효기간 3년)'를 발급하고,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
- 6차산업 경영체 대상 금융지원
 - 6차산업화 추진 경영주체에 대하여 시설·장비 구입 자금, 리모델링 자금, 운영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으며, 융자방식은 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선입선출 형태의 총 자금 Pool제로 운영
- 6차산업 경영체 경영 컨설팅 지원
 - 마을 경영체, 지역농협, 산림조합,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향토산업육성사업완료 사업단 등으로 법인격이 있는 6차산업화 경영체를 지원 대상으로 함.

(2) 6차산업화 정책 추진의 성과

- 6차산업 참여 주체 증가
 - 6차산업화에 해당하는 농업 다각화 활동 참여 농가 및 법인 수의 지속적인 증가
 - 우수 경영체라고 할 수 있는 인증 경영체 증가
: 379개('14 예비인증) → 950(현재)

표 4. 농가의 다각화 활동 참여 변화

단위: 개, %, %p

구분		2010		2014		증감율(%)
		농가수	비중	농가수	비중	
2차산업	농축산물 가공업	8,564	0.7%	13,512	1.2%	57.8%
3차산업	직판장	28,127	2.4%	7,731	0.7%	-72.5%
	직거래	89,107	7.6%	97,232	8.7%	9.1%
	농가식당	9,043	0.8%	11,529	1.0%	27.5%
	농촌관광사업	4,468	0.4%	4,489	0.4%	0.5%
	소계	134,841	11.1%	130,004	10.8%	-7.5%
소계		139,309	11.8%	134,493	12.0%	-3.5%
총 농가수		1,177,318		1,120,776		-4.8%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림어업조사

표 5. 농업 법인의 다각화 활동 참여 변화

단위: 개, %, %p

구분	2010(A)		2014(B)		증감		증감률 (D-C)
	법인 수	구성비 (C)	법인 수	구성비 (D)	증감 수 (B-A)	구성비	
법인 수	8,361	100.0	15,043	100.0	6,682	100.0	0.0
농업 생산	3,112	37.2	4,461	29.7	1,349	20.2	-7.6
농업 생산 이외	5,249	62.8	10,582	70.3	5,333	79.8	7.6
가공 판매	1,568	18.8	3,154	21.0	1,586	23.7	2.2
유통 판매	1,730	20.7	4,100	27.3	2,370	35.5	6.6
농업서비스	613	7.3	942	6.3	329	4.9	-1.1
기 타	1,338	16.0	2,386	15.9	1,048	15.7	-0.1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어업법인조사

○ 6차산업 관련 활동의 부가가치 창출 확대

- 농림업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공·유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

표 6. 농촌융복합산업의 일반 현황

		2011	2012	2013	증가율(11→13)
6차산업 법인 수		4,497	5,678	6,938	54.3%
6차산업 부가가치(십억 원)		1,268.9	1,521.6	1,755.9	38.4%
농림업 부가가치(십억 원)		26,721	27,359	27,376	2.5%
가공	법인 수	2,046	2,472	3,022	47.7%
	수입(십억 원)	3,474.5	4,217.0	5,313.0	52.9%
유통	법인 수	2,525	3,243	3,896	54.3%
	수입(십억 원)	5,733.8	6,878.2	7,888.8	37.6%
음식·관광	법인 수	340	506	644	89.4%
	수입(십억 원)	86.4	138.2	163.4	89.2%

주: 가공, 유통, 음식, 관광을 중복으로 참여하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유형별 법인수의 총합과 전체 법인수가 불일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연구

○ 농촌 관광의 활성화

-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접근성·편의성 향상, 우수 관광자원 발굴·홍보 등을 통한 농촌관광 품질 제고 추진
- 코레일, 민간여행사 등과 협업하여 ‘으뜸촌 기차여행’ 등 다양한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운영 및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농업농촌 직업체험프로그램
- 농촌사랑 상품권, 신용카드(신한, 삼성, 농협) 포인트를 농촌관광지에서 사용토록 하여 편의성 제고

○ 6차산업에 대한 농민 및 일반 대중의 인식 확대

- 농민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6차산업화에 대한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6차산업화 정책 인지 여부¹⁾ 조사 결과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6차산업화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의 6차산업화¹⁾의 개념을 알고 있다: 97.4%
 - 검색사이트 ‘6차산업’의 검색 빈도 분석 결과 지속적으로 검색 빈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검색 최고빈도일수: 100 (2015. 11. 9, 11월의 6차산업인)
 - 2015년 8월 17일: 93 (2015. 8. 13, 6차산업 경진대회 관련)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연구 중 설문조사 자료

그림 5. 6차산업 검색 빈도 변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연구

5. 향후 과제

- 농업 현장애로 해소를 통한 지속적인 6차산업화 경영체 지원
 - 다양한 판매플랫폼 확대로 안정적 판로 지원
 - 융복합시설제도 도입 등을 통한 규제 개선을 통해 6차산업화의 영역 확대
- 지역 별 발전 경로에 연동한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의 구축
 - 선도 업체가 주도해온 6차산업화 모델을 지역 내 협업과 분업 체계 구축 방식으로 전환
 - 개별 농가 단위에서까지 2·3차 융복합 활동에 일률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은 다수의 농가 여건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임
 - 대다수의 농가는 독자적인 6차산업화 보다는 타 주체와의 연계를 통한 6차산업화 참여를 희망
 - 농산물 생산에 주력할 농가와 가공·체험관광 등의 다각화를 확대할 농가 및 법인을 구분하여 지역 단위에서 여러 주체들 간 협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표 7. 6차산업 참여 방식 설문조사 결과

참여 방식	응답자수(명)	비중(%)
농가 독자적으로 추진	92	24.2
기존 민간기업과 거래관계 형성	32	8.4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추진	90	23.7
로컬푸드를 통한 판매, 가공, 체험프로그램 참여	156	41.1
기타	10	2.6
계	380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연구

- 지역 내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각자의 특성에 맞도록 6차산업화 참여 기회를 확대
 - 가공센터 등을 확대하여 영세 농가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역량이 있는 귀농·귀촌인 및 청년 인력을 대상으로 지역 단위 6차산업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강화
- 6차산업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 단위의 지원 체계 활성화
 - 지자체들로 하여금 6차산업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 부문 육성 및 인큐베이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
- 공급자 중심의 6차 산업 외연 확대 전략에서 발전하여, 제품·서비스에 대한 소비기반의 확충에 역점
 - 6차산업 관련 제품이 소비자에게 차별성 있는 제품으로 인식되고 독자적 시장을 확보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인증제도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
 - 6차산업 활동 참여 법인 및 농가 확대를 통해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였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련 제품 구매 의향이 높지 않고, 6차산업화 세분 시장도 발달되지 않은 상황
 - 농촌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 개발
 - 경관, 문화, 생물다양성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6차산업 콘텐츠의 다양화
 - 농촌의 전통·문화적 자산과 집합적 활동의 결합을 통한 농촌 관광의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접근성·편의성 제고